

口語에서의 指示語의 用法에 대하여

- '그러-, 이리-, 저러-'를 中心으로 -

신 지 연

1. 서 론

Halliday & Hasan(1976: 33)에서는 지시 표현을 크게 상황 지시와 문맥 지시로 나누고, 다시 문맥 지시를 선행 지시와 후행 지시로 나눈다. 상황 지시는 다시 말해 화용론적인 지시를 말하는 것이고 문맥 지시는 통사론적인 지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시 선행 지시는 전술 언급한 내용을, 후행 지시는 후술 언급할 내용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시를 위한 언어적 장치로는 '이, 그, 저'와 같은 지시어와 이의 합성어 내지 파생어라 볼 수 있는 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이리, 그리, 저리, 여기, 거기, 저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용언으로 '이러-, 그러-, 저러-' 등의 동사류와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 등의 형용사류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용언인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류가 구어체에 서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지시 양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그 다음 구어에서 지시어가 지시적인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 몇 가지 경우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서는 구어에서의 특징적인 현상인 말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간투사로 '이, 그, 저'가 쓰이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그러-, 그렇-'류의 형태적인 통합관계를 살펴본 다음 3장에서는 '그러-, 그렇-'류의 구어에서 특징적인 지시 표현의 용법을 검토하고, 4장에서는 지시어가 지시를 하지 않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 논의한다.

2. 형태적 고찰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는 여러 가지 종결 어미들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과, '이런, 그런, 저런' 등 관형형 어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 또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등 부사형 어미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 등의 여러 활용형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류의 동작 동사형과 '그러하-'류의

상태 동사류가 그 쓰임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연결어미와의 통합 관계를 살펴 보면 ‘그러-’에는 모든 연결어미가 모두 후접될 수 있지만, ‘그렇-’의 경우는 ‘그러-’보다는 훨씬 제약이 심하다. 그러나 연결어미들을 ‘그렇-’과 통합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이분할 수만은 없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과 통합되지 않는 동일한 현상으로 보일지라도 그 원인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첫째, 어떤 어미들은 형용사와는 통합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어미들에는 ‘-자, -자마자, -느라고, -러, -려, -고자, -도록, -다가’ 등이 있다. 둘째, ‘그렇-’ 자체가 ‘ㅎ’이라는 불안정한 자음을 종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음이나 비음, 유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음운 탈락이 이루어져 ‘그러-’형과 형태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렇-’형은 ‘-고, -다가, -기에, -더라도, -든지, -거나, -다만, -지만, -거든, -되, -건만, -거니와, -더라니, -게, -듯’ 등 ‘ㄱ’이나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후접될 경우에만 분명히 드러나고, 그외에 ‘-어, -어도, -어서’ 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뒤에 오거나, ‘-ㄴ들, -ㄴ데, -ㄴ지라도, -ㄴ망정, -ㄴ수록, -ㄴ데, -니까, -며, -면, -면서, -므로’ 등 비음이나 유음 등의 [-obstruent]의 자음을 경우에는 ‘그러-’형과 형태적으로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

종결어미가 연결되는 경우는 평서문과 의문문만을 검토하면 된다. 형용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은 어말어미보다는 선어말어미와의 통합관계가 될 것이다.

- (1) a. 할머니는 마음이 착하십니다. 할아버지도 그러십니다.
b. 할머니는 주무십니다. 할아버지도 그러십니다.
- (2) a. 영화는 마음이 착합니다. 철수도 그렇습니다/까.
b. 영화는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철수도 그렇습니다/까.
- (3) a. 영화는 마음이 착하다. 철수도 그렇(느)냐.
b. 영화는 밥을 맛있게 먹는다. 철수도 그러(느)냐.
- (4) a. 영화는 마음이 착하더라고요. 철수도 그렇더라고요.
b. 영화는 밥을 맛있게 먹더라고요. 철수도 그러더라고요.
- (5) a. 영화는 마음이 착하겠어요. 철수도 그렇겠어요.
b. 영화는 밥을 많이 먹겠어요. 철수도 그러겠어요/그렇겠어요.
c. 나는 밥을 많이 먹겠어요. 나도 그러겠어요/*그렇겠어요.
- (6) a. 영화는 어렸을 때 마음이 착했어요. 철수도 그랬어요.
b. 영화는 어렸을 때 밥을 잘 먹었어요. 철수도 그랬어요.

(1)은 존경 선어말어미 ‘시’와의 통합관계를 보인 것이다. ‘ㅅ’은 [+obstruent]의 자음이지만 ‘그러-’와 ‘그렇-’이 형태적으로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는 화석화된 합쇼체 ‘읍/습니다’와의 통합관계를 보인 것이다. (3)은 어미와의 통합을 보인 것이다. 비음이 후접되지만 ‘그렇-’은 형태적으로 ‘그러-’가 되지 않는다. ‘진행상’을 나타내는 직설법의 ‘느’가 개재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4)는 회상법의 ‘더’가 통합되는 경우이다. (5)는 미래/추측의 선어말어미 ‘겠’이 통합되는 경우이다. (5b)처럼 ‘겠’이 추측의 뜻을 가질 때에는 ‘그러-’외에 ‘그렇-’으로도 대응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그러-, 그럭-’은 모두 선어말어미 ‘느, 더, 겠’과는 무리없이 통합되지만, 선어말어미 ‘았, 시’와 통합될 경우에는 ‘그럭-’은 ‘그러-’로 형태상 갈아집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관형형어미와의 통합에서는 (7)과 같이 모두 ‘그러-’가 된다.

- (7) a. 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좋다. 나도 그런 사람이 좋다.
- b. 나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좋다. 나도 그런 사람이 좋다.

이처럼 ‘그럭-’은 그 형태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이유로 그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와 혼용되어 쓰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 ‘그러-’가 가리키는 대상에는 ‘그럭-’도 포함된다.

3. 의미 · 화용적 고찰

지시 표현은 1장에서 언급한 대로 다음 그림과 같은 쓰임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 (8)
 - 상황 지시
 - [의식 속의 것을 지시
 - [상황에 실재하는 것을 지시
 - 문맥 지시
 - [선행 지시
 - [후행 지시

아래에서는 구어에서 특징적인 지시 표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문어에서도 보이는 용법은 전형적인 것으로 보아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

3. 1. 상황 지시로 볼 수 있는 경우

3. 1. 1. 앞의 행동을 받는 지시 표현을 위한 대동사

- (9) a. (오락실에 들어가는 학생을 보며 자기 아들에게) 너는 절대로 저러지 마라.
- b. 청소년들한테 뒤떨어지지 않을라구 그러는 거 아니예요?

먼저, (9a)와 같은 예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 지시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9b)의 ‘그러-’는 어른들이 ‘TV저널’ 같은 연예잡지를 읽는 행위를 받는다. 이러한 쓰임은 구어, 문어를 통틀어 ‘그러다’류의 전형적인 쓰임으로 구어에만 특징적인 것은 물론 아니다. 이는 상황에 실재하는 것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1. 2. 의식 속의 것을 받는 상황 지시

1) 인용 동사의 역할

(10) a. 하이틴 로맨스물 바로 여러분들이 책보다 더 읽기 좋아하는 책을 그렇게 불른다 그렇습니다.

b. 낱고 나서 애기아빠한테 물어봤죠, 괜찮으나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드라구요.

(11) 제가 여기 나온다구 해서요, 그걸 다섯 권을 샀어요.

(12)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인제 니가 나를 꺾을라고 고집을 부린다 이러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그렇게 고집이 있다고, 고집을 꺾느냐, 꺾을라구 니가 그러느냐 이러시면은 그게 자식한테 인제 고집()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를 충분한 이유로 설득을 하셔야지, 그러니, 그렇대면은 그 고집센 아버지의 딸이, 제가 저는 고집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얼른 옆에 계신 어머님 보고 빨리 재를 치워라 빨리 어떻게 내 눈 앞에서 없애라. 내 큰 일 내겠다. 이러시드라고요.

구어에서는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용 동사로 ‘하-’보다도 ‘그러-’가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11)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하-’ 동사가 상위절 서술어로 쓰인 경우에 오히려 인용의 뜻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인용의 경우에 쓰이는 ‘그러-’도 문맥상에 나와 있지 않는 ‘말하-’라는 상황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러-’보다는 드물지만 ‘이러-’도 인용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 ‘이러-’를 ‘그러-’로 바꾸어 써도 무리가 없다.¹ 어떤 경우이든 구어에서는 ‘그러-’가 ‘하-’보다는 인용 동사로서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그러나, ‘그러-’가 ‘하-’와 단순 대치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그러-’는 ‘말하-’라고 하는 행위보다는 그러한 말에 나타난 원화자의 태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다. 곧, (13a)의 ‘그러①’

¹ 어떤 경우에 ‘이러-’가 선호되는지에 대한 고찰은 후고로 미룬다.

이 가리키는 것은 “딸 낳(았)다”는 발화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말을 포함한 비웃는 태도이며 ‘그러②’가 가리키는 것은 “아들 꼭 낳아야 되겠다”며 재촉하는 태도라는 것이다.

- (13) a. 네 처음에는 괜찮드니, 인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딸 낳다구 주위에서 많이 그러①니까 저한테도 막 그러②드라구요. 아들 꼭 낳아되겠다구.
 b. 딸 나<낳으>며는 아들 놀<놓을>때까지 나<낳아>야된다. 그러드라구요.

2) ‘선택’의 뜻을 가지는 어미 뒤에서의 관형 표현

- (14) a. 제가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데에서
 b. 근데 줄거리나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말이나 이게 우리 문화하구 너무 안 맞어요.
 c. 해피엔딩으루. 머, 자살하거나 이런게 별루 없드라구요.
 d. 다른 뭐 문학책이라든지 그런 두꺼운 문학책이라든지 교과서 한장보다 더 여유있구 가볍게 읽어 넘길 수 있어서 애들 많이 읽구 있거든요?
 e. 그 설화라든가 그런거 해석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f. 우리가 병에 걸릴 적에 에 뭐 한번 어떤 거 지저분한 것을 만져가지고 걸린다가 이러기보다는 계속 쌓이고 쌓이고 좋지 않은 것에 접촉을 함으로써 거기에 병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g. 전 시두 때두 없이 잠자는 습관이랄까 그런게 있거든요?

‘이랄까, 거나, 이나, 든지, 든가’와 같은 어미들은 계사나 용언의 활용형의 하나로서 ‘선택’의 뜻을 가진다.² 구어에서는 특별히 이런 부류의 어미들 다음에 지시어가 쓰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위 (14a)에서 (14g)까지에서 지시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 (14) a'. 미국이나 이런 곳
 b'. 줄거리나 이런 것, 말이나 이것
 c'. 자살하거나 이런 것
 d'. 문학책이라든지 그런 (책)
 e'. 설화라든가 그런 것

² 이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나’의 경우는 현행 문법에서는 ‘선택’의 뜻을 가지는 보조사로 규정되어 있다(cf. 금성판 국어대사전). 곡용어미로 보든 활용어미로 보든 모두 어미로 포괄하기로 한다.

f'. (병에) 걸린다든가 이러기

g'. 습관이랄까 그런 것

여기에서 ‘이런, 그런’이 지시하는 내용은 ‘습관, 미국, 줄거리, 자살, 문학책, 설화’ 등은 아니다. 여기에서 ‘이러-, 그러-’가 대응하는 내용은 ‘습관과 비슷한 것, 미국과 유사한 곳, 자살에 準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지시는 문맥 지시라기보다는 상황 지시라 봄이 옳을 것이다. 문면에 나타난 것이 아닌, 화자의 의식 속에 있는 그와 유사한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 지시를 의식 속의 것을 지시하는 경우와 실제 세계의 것을 지시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할 때, (9)처럼 앞의 행동을 받아 대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실제 세계의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14) 같은 경우는 의식 속의 것을 받는 상황 지시로 볼 수 있다. 인용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말하-’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의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이런 경우는 의식 속의 것을 지시하는 경우로 봄이 더 옳을 듯하다. 화자가 ‘그러-’라는 단어를 선택했을 때, 꼭 원화자가 말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 지시어를 쓴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식 속의 것을 받는 지시어로는 ‘저’가 선택되지 않는데, 인용 동사로도 ‘저러-’는 마찬가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3.2. 문맥 지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문맥 지시의 경우에 문어에서는 단문을 넘어서 다른 절의 것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어에서는 같은 절 내의 것을 한 번 더 받아주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문어에서 문맥 지시를 하는 것은 대부분 같은 대상에 대하여 반복해서 표현해야 할 때 대명사 등을 사용해서 공지시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대응(代用, anaphora)이라 한다. 이는 어떤 성분이 반복돼야 할 경우의 잉여적인 노력을 피하기 위한 장치인데, 같은 문장 내의 것을 다시 한 번 받는 것은 대응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경제성이라는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어의 대응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듯 문어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유형의 지시는 구어에서는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선행 요소를 지시하는 경우와 후행 요소를 지시하는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이러한 유형의 지시를 살펴 본다.

3.2.1. 선행 지시

1) 다중 수식 구조를 이루는 지시

‘그러-’가 사용되는 지시 표현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15) a. 철수가 아침 일찍 학교에 갔고, 영희도 그랬다.
- b. 철수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학생이고, 영희도 그런 학생이다.
- c. 철수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갔고, 영희도 그렇게 했다.

(15)의 문장들은 단일 문장들이지만, 엄격히는 두 개의 서술어를 중심으로 하는 두 개 문장의 연합이다. 그리고 ‘그러-’가 받는 것은 앞의 절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구어에서는 말해진 내용이 같은 절 안에서 다시 한 번 지시어로 받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 이러-’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 성분을 이룰 때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절을 이룰 때 빈번히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체언 또는 하나의 용언에 대한 다중 수식구조를 이루게 된다.

- (16) a. 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답에 같이 공감을 하고 그답에 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옆에 있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 b. 그니까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하나씩을 가진 그런 메달부부신데
- c. 대충 엄마들이 딸에게 공부하라고 감독하고 지시하는 그런 위치가 되기가 쉬운데, 특별히 친구 관계같이 되는 비결이 있으니까?
- d. 그, 멀쩡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별 특별하게 그, 뭐 역할이 이렇게 별루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시다.
- (17) a. 그러니까 이런 문학작품보다는요 가볍게 손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걸 훨씬 많이 읽구 그러구 있어요.
- b. ‘읽게 된 동기는’이라는 질문에 친구가 읽어보라구 권해서, 그래서가 오십 오 퍼센트가 제일 많습시다.
- (18) a. 밥먹을 때 식구들이 줄을 서서 그렇게 막 먹을 정도였다.
- b. 근데 어떻게 병원에 가서 한 달간 대소변까지 받아낼 만큼 그렇게 정열적으로 간병을 하셨어요.
- c.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냥 들이 만나서 손잡고, 오손도손 아 낯엿을 주워가면서 이렇게 추억을 쌓아갈텐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오손도손한 추억은 별로 없었겠네요.
- (19) a. 가장 깨끗한 여러분들에 연영<연령>에 그런 걸로써 소일한대는 거는 이전 청량제가 안되고,
- b. 아빠가 그, 아들 이래 손잡고 탁 와가 목욕 시키는 게 그게 그렇게 부럽드라구요.

c. 동성동본이라는 게 이게 우리 나라에서 혼인법에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20) a. 근데 남편이 말이죠. 발가락 손가락 눈 코 그거부터 먼저 봤다는 데 부인 심정도 그러셨어요?

b. 잘 건디나 그걸 동생들이 와서 이렇게 쓱 살피고 가고,

이러한 유형의 지시는 (16)과 같은 관형절에서뿐만 아니라, (17), (18)과 같은 부사절에서도 나타난다. (17)에서는 ‘읽구 그러구’, ‘권해서 그래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부사절을 형성하고 있는 ‘읽구, 권해서’ 등을 ‘그러-’로 다시 한 번 반복시키는 데 선행어의 부사형 어미가 그대로 복사되어 사용된 경우이고, (18)은 ‘줄을 서서, …받아낼 만큼, …주워가면서’와 같은 부사절을 ‘그렇게’라고 하는 부사어를 사용하여 다시 한 번 반복시킨 경우이다. 즉, (17)의 경우는 ‘그러-’의 굴절 형태가 사용된 것이라면 (18)은 ‘그러-’에서 파생되어 어휘화된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20)과 같이 주어 성분이나 목적어 성분³을 다시 한 번 더 받는 ‘그것, 이것’과 같은 지시 대명사의 사용도 이와 마찬가지로의 쓰임으로 본다. (19)에서는 이미 제시된 주어 성분을 다시 ‘이거, 그거’ 등으로 받고 있고, (20)에서는 목적어 성분을 ‘그거’로 받고 있다.

지시어는 원래 언어 행위의 경제성을 위해서 어떤 성분이 반복될 때 그것을 모두 되풀이하는 문법적인 잉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인다. 문어에서의 대응은 적어도 “철수도 학교에 가고 나도 그랬다”에서처럼 복합문 구성에서 나타나고, 그 이상의 단위 즉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도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구어에서, 지시어 ‘이러-, 그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위와 같이 단일 문장 안에서 상당히 길게 서술된 한 성분을 다시 한 번 받아서 정리하는 쓰임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의 지시 표현은 발화에서 제외되어도 문법적으로나 정보 전달면에서나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잉여적인 것이다. 문어에서와 달리 구어에서의 이러한 지시어의 사용이 잉여적인 것은 구어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어에서의 정보 전달은 일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심리적이라기보다는 정보 위주의 것으로서 상황 지시이든 문맥 지시이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소기의 정보 전달의 소임은 달성된 것으로 간주되나, 청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즉 양방적인 발화 장면에서의 구어 화자는 상황이나 문맥과는 무관한 언어 행위의 효율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즉 정보 전달에 있어서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단일 문장이라도 혼란스러워

³ (20b)의 ‘잘 건디나’는 전형적인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는 체언은 아니지만 ‘잘건디나를’로 쓰이는 경우 명사상당어구로 볼 수 있다. 임홍빈(1987) 참조.

질 수 있는 복잡한 문장이라면 같은 자격을 가지는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지시어가 이용되는 것이다. 한편 청자에 대한 전달의 측면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 계획 측면에서도 하나의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구어의 화행은 물리적인 시간 단위 안에서 이루어 지므로 무한히 길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발화 계획도 종이 위에 그려진 것의 도움 없이 오직 머리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종속절 안에 다시 관형절이 포함된다든지 관형절 안에 다시 다른 관형절이 몇 개씩 포함된다든지 하는 여러 층위가 복잡하게 얽힌 문법 구조를 계획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어 문장은 그러한 계층적인 복잡성에는 약한 대신, 수평적인 복잡성에는 오히려 강한 면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유사한 단문 구조가 연결 어미를 가지고 끝없이 나열될 수 있다든가, 하나의 보문 명사나 관계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여러 개의 관형절이 나열될 수 있다든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래서 구어에서는 하나의 명사에 여러 개의 관형절이 걸리는 소위 다중 수식 구문이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다중 수식 구문을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 지시어가 ‘이런, 그런’의 형태로 묶어주는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시어는 다시 한 번 다중 수식 구조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특이한 인용 구성

다음으로는 구어에 특이한 인용에서 선행 지시의 예를 살펴 볼 수 있다.

- (21) a 내용이 실제로 재밌다구 느낀다 (그래서) 그냥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특히 재밌나요?
 b. 청소년 세대는 ‘스크린’, 영화잡지, 세계적인 스타들에 스캔들을 알 수 있으니까 많이 읽는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c. 남들이 보면, 볼 때, 아유 년 참 애교가 많다.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d. 그냥 눈으로 그니까 밥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e. 밥 먹어라 이런 소리는/ 이거보다도 밥 잘 드세요 이렇게 했겠죠.

(21a)에서 밑줄친 부분은 문어에서라면 보문자 ‘고’가 사용되어 ‘그냥 재밌다고’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구어에서는 인용문이 인용 보문자 없이 지시어 ‘그렇-’과 함께 쓰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 때 인용절과 지시어 ‘이렇게’ 사이에는 휴지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인용문이 마치 직접 인용문처럼 독립된 것처럼 보여 직접 인용의 한 경우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인용문은 원화자의 발화가 그대로 옮겨오는 것으로서 서법이 나 양태의 형태소뿐만 아니라 상대 높임법 등급이 그대로 옮겨오지만 (21)

의 피인용문들은 명제 내용만이 옮겨온다는 점에서 그와 다르다. 이들은 역시 간접 인용문의 변형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인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용은 언제든지 직접 인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은 예가 시사해 준다.

(22) A: (아내가 제3자에게 얘기함) 그냥 눈으로 그녀가 밥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B: (남편이 끼어들음) 밥 먹어라 이런 소리는. 이거보다도 밥 잘 드세요 이렇게 했겠죠 아무래도

(22)에서 남편은 아내의 발화 안의 피인용문을 간접화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어에서는 (23)~(25)에서 보이는 것처럼 완형 보문과 유사한 것이 보문자 없이 문장 안에 삽입되고 그것을 다시 지시어로 받아서 관계 구성을 이루는 특이한 구성도 많이 나타난다.

(23) 자, 여러분들 그,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깐, 은근히 성교육이 모자란다 머 이런 얘기로도 들려요.

(24) 하이틴 로맨스물에서 아, 그런 거두 좀 간접적으루 언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23)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어에서 사용된 문장에서라면 (25a)와 같은 관계문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 (25) a. 성교육이 모자란다는 얘기
- b. 성교육이 모자란다고 하는 얘기
- c. 성교육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런 얘기
- d. 성교육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

(25a)는 (25b)에서 보문자와 인용 동사가 생략된 형태이며, 이를 구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위 예문 (16)과 같은 구조로 바꾸면 (25c)가 된다. (25d)는 (25c)에서 앞 관형질의 인용 동사와 보문자를 모두 생략한 형태이다.

3.2.2. 후행 요소 지시

(26) a. 그러니깐 저는 저는 그래 생각래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이렇게 토막친 (문학이) 자꾸 만들구 있어요.

b.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셨는데 마지막 제가 이 결혼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저희 그, 부모님한테 저는 그, 결혼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제 집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선 같이 사

는 사람의 어떤 이, 마음 통하는 거 생각이든 이게 같아야 되니까 저는 그걸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26)의 예들은 밑줄 친 ‘그렇게’이 선행하는 내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뒤에 나올 내용을 가리키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가 머리 속에 있는 생각을 가리키며 먼저 쓰이고 그것을 나타낼 적절한 말이 그 뒤에 찾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식 속의 것을 지시한 상황 지시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26)의 ‘그렇게’는 뒤에 나올 내용을 가리키는, 없으면 안 되는 요소이므로 후행 지시의 경우로 보기로 한다. 이러한 후행 지시의 예는 구어에서의 발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시간적으로 단선적인 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4. 비지시적 용법을 보이는 경우

구어에서의 지시 표현은 꼭 지시적인 용법이 아니더라도 그 쓰임이 많다. 다음의 예들은 상황이나 문맥 내에서 대응받는 피지시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다.

4. 1. ‘매우’라는 뜻의 부사로 쓰임

- (27) a. 이 책들두 외국에 것을 그대루 지금 카피해서/또는 허가두 안 받구 그렇게 들어오는 책들이 그렇게 많다구럽니다.
 b. 제가 읽은 책두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c. 그, 내용이라는 게 그렇게 뭐, 나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d. 그게 그렇게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e. 그 안에서 그렇게 쉽게 만나지거나 데이트를 할 수는 없었을텐데요.
 f. 집안에 이렇게 오시면은 아내를 위해서 막 그렇게 아양두 떨구, 뭐 그렇게 잘 하신대며?
 g. 그 시절만 해두 그렇게 쉽게 양쪽 끝에서 만나시기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위의 ‘그렇게’가 지시하는 내용을 문맥이나 상황에서 찾을 수는 없다.⁴ 위의 ‘그렇게’를 문어에서라면 모두 ‘매우, 상당히, 꽤’ 등의 부사어로 바꿀 수

⁴ 이 경우 ‘그렇게’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여 想脈에서의 추측과 결부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대응의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지시어의 속성에 비추어본다면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비지시적으로 쓰이므로 부사로 생각할 수 있다.

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에 강세가 없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게’가 수식하는 용언은 보통 ‘쉽다, 어렵다, 크다, 많다’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이 경우 같은 지시어이지만 ‘이렇게’와 ‘저렇게’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다.

이러한 지시성이 없는 ‘매우’의 뜻을 가지는 부사어 ‘그렇게’는 구어에서 쓰이는 부사로 새로이 사전에 등재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와 같이 구어에서만 현저하게 많이 쓰이는 부사로는 ‘되게, 막, 슛게’ 등이 있다. 특히 ‘되게’는 구어 발화에서, 문어에서 주로 쓰이는 ‘매우, 퍽’ 등을 대신하는 부사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⁵

4.2. 머뭇거리는 소리의 간투사로 쓰임

실제 발화 장면에서는 전하고자 하는 정보의 명제 내용에는 꼭 필요없는 언어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언어 요소들은 주로 다음에 할 적당한 말을 찾기 위해 머뭇거리거나(hesitation), 어떤 이유로건 발화를 주저하게 되는 경우에 쓰이게 된다. 간투사(間投詞, interjection)라는 용어가 발화 안에 던져지듯이 끼어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이러한 언어 요소들이야말로 간투사에 속하는 것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감탄사라고 불려온 것들을 또 하나의 간투사로 ‘간투사1’이라 할 때, 각기 다른 하위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말 중간에 머뭇거리는 소리로 끼어 들어가는 언어 요소들을 ‘간투사2’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 국어에서는 이런 언어 요소로 ‘어, 으’ 등 외에 ‘이, 그, 저’가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이제, 인제, 뭐, 뭐야’ 등이 개인의 습관에 따라 특정의 것이 선호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개인에 따라서 이러한 간투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잘 쓰지 않는 사람도 있으므로, 이러한 간투사는 통사 구조상 필수적인 어휘 요소라기 보다는, 화용상의 단어로 봄이 옳다.⁷

⁵ 이러한 부사 외에도 여격 조사 ‘한테, 보고, 더러’, 공동격 조사 ‘랑, 하고’, 만치’, 방법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동시 접속의 ‘아서, 어서’ 대신에 쓰이는 ‘가지고(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자.)’ 등은 구어에서만 쓰이는 어휘로서, 그에 상응하는 문어 어휘 ‘에게, 와, 만큼, 어서’ 등보다 구어에서는 현저하게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접속 어미 ‘거든’이 구어에서 문말어미로 쓰이는 경우는 그 용법이 거의 확립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A: 철수가 이번에 일등을 했다며?

B: 이번에 시험보는 날 영희가 결석을 했거든.

⁶ 줄고(1988)에서는 이러한 간투사2를 형식간투사라고 분류한 바 있다.

⁷ ‘화용상의 단어’라 함은 화자가 통사적인 규칙성에 의해 그 단어의 발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부딪치는 상황에 의해 그 발화를 결정하는 면이 많은 단어를 이른다. 줄고(1988: 6-7) 참조.

비록 문장 구조상 필수적인 요소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간투사들은 일정한 쓰임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용법으로 쓰인 어휘 부류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닫힌 부류들이므로 국어 어휘로 등록이 되어야만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사전(금성판 국어대사전)에는 이러한 간투사2의 용법을 가진 것으로 ‘저’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 ‘이, 그’나 ‘뭐, 뭐야, 이제, 이제’ 등의 간투사2의 용법은 실려 있지 않다.⁸ 그러나, 실제 구어를 녹취해서 분석해 보면, 위에 말한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것들의 출현 빈도가 훨씬 높다. 또한 현재, ‘이렇게’도 간투사2의 용법을 가지는 것이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중으로 보인다. 특히 이 경우에 ‘이렇게’는 ‘이케’라는 준말의 형식으로 많이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지시사가 간투사2로 쓰이는 경우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⁹

4. 2. 1. ‘이렇게(이케)’

- (28) a. 친구들은 전부 다 말이지 미팅도 하고 또 뭐 어떤 이성간으로 이렇게 뭐 놀러도 가고 그러는데
 b.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뭐 이렇게 앨범 사진 이라도 보고 이라면은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c. 그게 그렇게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자주 만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정말 내 눈 앞에 그게 닦혔다는게 실감이 나드라구요.
 d. 집안에 이렇게 오시면은 아내를 위해서 막 그렇게 아양두 떨구
 e. 저두 또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¹⁰ 목욕탕에 한번 벨구가구 싶드라

⁸ 신기철·신용철 큰 사전에는 ‘그’에 대해 감탄사의 용법을 가지는 것을 신고, ‘감개가 깊거나 또는 무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라 풀이하고 있다(예: 그 참 이렇게 고마울 데가 있나).

⁹ ‘이제, 이제, 뭐, 뭐야’ 등이 실제 대화에서 간투사2의 용법을 가지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시집을 왔는데도 계속 친정 엄마한테 가서 매달리구 뭐 조르르 가서 남편이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과거의 허물을 못벗은 거죠.

(2) 제가 인자 팔십 칠년도에 인제 그; 인제 보도가 인제 인제 그, 언론계에 인제 알려지고 그러구 난 뒤로부터는 인제 둘이 인제 발이 묶이는거죠.

(3)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오십줄에 접어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인제 뭐야 전공도 살리고 또 뭐야 취미도 살려서 이렇게 인제 뭐야 가정생활을 아니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 또 인제 뭐야 그 날에 있었던 대화두 나뉘가면서……

¹⁰ *는 실제 음성 실현이 [이케]처럼 준말로 들리는지 불확실한 경우를 나타낸다. 즉, 거의 [이케]로 들리지만 유음r의 실현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다. 본고에 실린 구어 자료들은 모두 실제 T.V. program을 녹취, 전사한 자료들이다.

구요.

- f. 뒤 병원에 가서 뭐 식이요법도 뭐 이렇게 하고
 (29) a. 그런데 저는 이케 오빠 동생 그때부터 항상 그래요.
 b. 이제 양쪽 부모님들두 인제 안심을 하셨을 거구 주변에서 큰 축복이 있었을텐데 이렇게 첫번째가 지민인가요? 따님이?
 c. 인제 만나서 이케 운동 선수들이 운동은 안하고 데이트만 한다 인제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d. 우리나라 문화라는 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케 여성 문화가 말이죠 이케 이분화되고 양분화되어 있다구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가 간투사2로 쓰이는 경우에는 (28)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양태적인 것을 덧붙여서 설명을 할 자리에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없는 것이 ‘이렇게’를 간투사2로 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 즉, a의 ‘놀러가다’, b의 ‘만나다, 보다’, c의 ‘시간이 흐른다’, d의 ‘오다’, e의 ‘데리고가다’, f의 ‘하다’를 수식할, ‘어떻게’에 해당하는 양태부사구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가 들어가지만, ‘이렇게’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는 정보 전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지 않고 간투사가 되는 것이다. (29)의 예들은 (28)의 예들보다도 더욱 더 지시성이 없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렇게’는 문장 구조상으로도 ‘어떻게’와 대치시킬 수 없다.

간투사로 나타나는 ‘이렇게’는 ‘이렇다’가 가지는 본래의 어휘적인 의미, 곧 지시적인 의미를 거의 가지지 않으므로 매우 약화되어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간투사 ‘이렇게’는 ‘이케’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일이 많다. 또한, 간투사2의 용법으로 쓰일 때 ‘이렇게’는 ‘인제 어떻게’, ‘이렇게 뭐’ 등과 같이 다른 간투사2의 어휘들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러한 간투사의 쓰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만이 나타나는 점은 ‘매우’의 뜻으로 쓰이는 구어 부사로 ‘그렇게’만이 나타나는 점과 더불어 생각해 볼 때 매우 흥미롭다.¹¹

4.2.2. ‘이, 그, 저’

위에서 얘기한 머뭇거리는 경우에 쓰이는 단음절 간투사로는 ‘으, 어’와

¹¹ “선생님, 어떻게 요즘 건강은 좋으시죠?”와 같은 경우의 ‘어떻게’도 의문사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의 ‘어떻게’도, ‘이렇게, 그렇게’가 비지시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또한 매우 약하고 낮은 음조로 발화된다.

같은 음운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소리외에 지시어, ‘이, 그, 저’도 많이 쓰인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그’이고, ‘이’가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며, ‘저’가 가장 드물게 나타난다. ‘저’는 보통 어떤 화제를 꺼낼 때나, 남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꺼낼 때 쓰이는 비교적 확실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외의 경우라도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간투사2는 화자 지향적이며 화자에 따라 습관적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와 ‘이’는 그 쓰임이 서로 넘나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쓰인 자리에 ‘이’로 대체해 보거나, ‘이’가 쓰인 자리에 ‘그’를 대체해 보아도 의미상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은, 예문 (20)의 경우에 ‘그런’과 ‘이런’이 넘나들며 쓰일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이와 약간 다르다. 앞에서 ‘저’는 어떤 화제를 꺼낼 때나, 남에게 하기 어려운 말을 꺼낼 때 쓰인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청자가 많이 고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가 이처럼 문두가 아니라 문장 중간에 단지 머뭇거리는 상황으로 인해 끼어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청자 내지는 실제의 상황적인 면이 많이 고려된 경우에서이다.

- (30) a.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육 제도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 학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자아의 강도를 높여주고 폭을 확대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우리나라 교육에선 그걸 뒷받침을 덜해주고 있어요.
- b. 저는 제가 얼마전에 시집을 하나 냈는데, 제 그, 벗은 사진을 그냥 저, 땀니까, 저자 사진으로 낼려구 했는데, 그게 그, 출판법에 다 벗은 거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육조에 들어가서 상반신만 벗은 사진을 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우리 저, 조 선생님 저, 기본적인 발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 같아서 상당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은데요.
- c. 저, 왜, 조문경 선생 책 저도 봤는데, 그, 보니까 그, 따님 혜수가 주로 어머니하구의 어떤 그 정신적 교감이나 교신 이런 건 참 그 게 주종을 이루고 잘 되는데,
- d. 저, 신영숙 씨 경우에는 가공 식품이라구 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30a)에서 ‘저’는 상대방에게 묻는 의문문이 삽입된 경우에 쓰인 것이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발화에서 쓰였다. (30a)를 크게 세 부분의 발화로 나누어 본다면 (30a’)와 같다.

- (30) a'. A 그리구 그런 것들이 교육 제도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B 저, 학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자아의 강도를 높여주고 폭을
 확대시켜주는 거 아녘니까?
 C 근데 그, 우리나라 교육에선 그걸 뒷받침을 덜해주고 있어요.

화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해 나가는 가운데 B와 같은 청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반문을 한다. 이 때에는 발화에 청자를 고려한 상황이므로 간투사2로 '그'나 '이' 대신 '저'가 선호된다. 다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발화로 돌아간 C에서는 '그'가 쓰이고 있다. (30b)도 마찬가지이다. 청자를 고려한 발화인 '저 뭐니까'와 실제 상황 속의 인물인 '조선생'을 고려한 발화에서는 '저'가 쓰이고 있다. (30c)는 남이 말을 하는 가운데 끼어 들어서 자기 말을 꺼내는 경우이고, (30d)는 사회자가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경우이다. 자기의 발화 내용에만 전념할 수 없고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이런 경우에는 문두에 머뭇거리는 간투사로 '저'가 쓰인다. 그러나 (31)처럼 남에 의해 말해 줄 것을 부탁 받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잠시 생각하기 위해 머뭇거리게 될 때에는 '저'보다는 '그'가 쓰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 (31) A화자: 이연남 씨는 어떠세요.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리십니까.
 B화자: 어, 그, 여태까지 저기 주부님도 말씀하셨고, 이안영 씨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이와 같이 '이, 그'는 화자의 의식 속에 있는 상념만을 고려할 때 선호되고, '저'는 상대방이나 화자 외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선호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예외없이 모두 만족되는 것은 아니다. 간투사2의 발화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외는 많다.

장경희(1981)에서도 지시어 '이, 그, 저'의 간투사2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소개되어 있으나, 이를 간투사로 보지 않고, 형용사, 관계절, 소유격 '의' 같은 것에 의해 한정되는 명사 앞에 나타나는 한정사(限定詞)로 보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다음 (34)의 밑줄 친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나 '그'가 그러한 명사구만을 수식하는 것은 아니며, 부사어(32a, b)나 동사구(32c) 앞에 나타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이, 그, 저'를 한정사로 볼 수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4.2.1의 '이렇게'와 마찬가지로 간투사2의 '이, 그, 저'도 '이제 그 뭐야', '이, 저', '어, 그'처럼 다른 간투사와 중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이들을 간투사2로 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

- (32) a.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하고 제가 그, 아까 그, 생명을 대하는 여성이라는 거죠.

- b. 그래서/그걸 보면서 아, 참 이거 친구같은 모녀 관계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대충은 엄마들이 딸에게 공부하라고 감독하고 지시하는 그런 위치가 되기가 쉬운데, 특별히 친구 관계같이 되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 c. 그럼 또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그, 살기 위해서는, 결혼하셨으니 까 남편하고의 관계가 또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5. 결 론

이상에서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를 중심으로, 구어에서의 지시 표현이 나타나는 몇 가지 양상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이들이 상황 대응을 하는 경우에 구어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용 동사로 쓰인다는 점이였다. 그 외에 “미국이나 이런 곳”과 같이 선택의 뜻을 가지는 연결어미가 나타나는 경우에 나타나 특별한 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도 상황 대응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 다음 문맥 대응을 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관형절이나 부사절 뒤에서 다시 한 번 ‘이런/그런’이나 ‘이렇게/그렇게’ 등으로 다시 받는 경우였다. 그리고 인용문 “철수가 재밌다고 말했다.”가 구어에서는 “철수가 재밌다 이렇게 말했다.”로 흔히 나타나는 것도 문맥 대응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였다.

그밖에 지시어가 구어에서는 지시성이 드러나지 않는 용법을 가지고 쓰이는 일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하나는 대응적인 용법이 없이 부사 ‘매우’의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가 쓰이는 경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발화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머뭇거리는 소리인 간투사2에 ‘이렇게(이케)’나 ‘이, 그, 저’가 쓰이는 경우였다.

위와 같이 구어에서 지시사가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한 고찰은 현상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에 대한 해석 작업, 즉 구어의 특질을 지시 표현이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에 대한 고찰은 후고로 미룬다.

참 고 문 헌

- 김일웅(1982a) ‘우리말 대응어 연구,’ 부산대 대학원.
- 김일웅(1982b)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78.
- 남기심(1986) 국어완형보문법연구, 국어학총서 7, 탑출판사.
- 노석기(1984) ‘국어의 담화와 문장에 대한 특성 비교,’ 한글 184.
- 도수희(1967) ‘대용언에 대하여,’ 어문연구 5, 어문연구회.

- 도수희(1976) 「이, 그, 저」의 품사 문제, 『어문연구(대전)』 9.
- 박승윤(1983) 「생략에서의 동일성 조건」, 『언어』 8-1.
- 박영환(1987) 「국어의 대응현상」,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 송창섭(1980) 「Discourse와 Reference에 대하여」, 『영어영문학 연구』 18.
- 양동휘(1981) 「기능적 대응화론」, 『한글』 170.
- 양동휘(1986) 「한국어 대응사론」, 『국어학』 15.
- 임홍빈(1987) 「국어의 명사구 확장 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 임홍빈(1993) 「국어 억양의 기본 성격과 특징」, 『새국어생활』 3-1.
- 장경희(1980)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2.
- 장경희(1989) 「지시사 「이, 그, 저」의 범주 지시」, 『인문논총(한양대)』 17.
- 장석진(1976) 「대화의 분석: 정보와 조응」, 『응용언어학』 8-2.
- 장석진(1984) 「지시와 조응」, 『한글』 186.
- 장석진(1986) 「조응의 담화 기능」, 『한글』 194.
- 정정승(1984) 「대명사의 조응 현상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 최용환(1989) 「대응어 「자기, 그, \emptyset 」 연구」, 『경북대 대학원』.
- 한재현(1981) 「생략과 대응현상」, 『전북대 대학원』.
- 홍순성(1988) 「조응어와 선행어」, 『한국학 논집』 15,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 Halliday &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Group Limited.
- Levinson (1983) *Pragmatics*, Cambridge Univ. Press.
- Lyons, J. (1977) *Semantics II*, Cambridge Univ. Press.
- Wilkins, D. (1992) 「Interjections as Deictics」, 『*Journal of Pragmatics*』 18.

ABSTRACT

Deixis in Spoken Language

Ji-Yeon Shin

This paper aims at 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deixis in spoken Korean. These characteristics are drawn from a corpus of authentic spoken data. We focus on the verbs '이러-, 그러- and 저러-', which show special behavior in spoken language. In written language, most of these expressions have their (ante)cedents in the context. In spoken language, however,

they do not usually have cedents in the preceding or following utterances. In many cases, they refer to something in the situation or in the (speaker's) mind. Sometimes they are used as interjections or adverbs without any referential meaning. Their usage is very special in spoken quotation structure. As a quotation verb, such deixis verbs are used far more frequently than the verb '하-'. In addition, they form a special quotation structure which is peculiar to spoken language.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